Totentanz for piano and orchestra, S. 126

- □□—

정보

개요
곡명: Totentanz: Paraphrase on the Dies Irae, S. 126 작곡가: Franz Liszt (1811–1886) 작곡 시기: 1838년 구상, 1849년 필사본, 1853년 자필 수정과 1853·1859년 개정 초연: 1865년 4월 15일, 헤이그, Hans von Bülow 피아노, Johannes Verhulst 지휘 기준 범위: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최종판 (S.126/2)을

중심으로 하며, 첫 판본인 De profundis 버전은 별도로 설명한다. IMSLP: Totentanz, S.126 Wikipedia:

Totentanz (Liszt)

Franz Liszt의 《Totentanz》는 중세 진혼미사의 선율 Dies irae 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한 악장짜리
변주적 환상곡으로 만든 작품이다. 독주 피아노가 주제를 직접 제시한 뒤 관현악과 세 개의 카덴차를 사이에 두고 변주가 연속하며, 마지막에는 Presto와 Allegro animato가 결합된 종결부로 나아간다. 이 최종판은 1865년 초연과 출판을 거쳐 현재의 통상 연주판으로 자리 잡았다.

작품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여러 시기의 필사와 수정으로 남아 있다. Morgan Library가 소장한 August Conradi의 필사본 표지에는 1849년 10월 21일 날짜가 적혀 있고, Liszt의 자필 수정은 1853년에 더해졌다. Liszt Society는 구상과 개정의 연대를 1838년, 1849년, 1853년과 1859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849년의 필사본, 1850년대 후반의 개정, 1865년의 공연판은 서로 다른 자료 단계로 구분된다.

출판 정보와 판본

1865년 Leipzig의 C. F. W. Siegel이 최종판을 처음 출판했다. 현재 널리 유통되는 관현악 총보 가운데
하나는 Bernhard Stavenhagen이 편집한 Musikalische Werke, Serie I, Band 13(Leipzig, Breitkopf & Härtel, 1915)이며, 이 판본은 최종판의 총보와 파트를 함께 전한다. Stavenhagen 판을 바탕으로 한 Eulenburg 실용판도 별도로 유통된다.

IMSLP는 같은 작품 페이지에서 첫 판본을 ‘De profundis version’으로, 두 번째 판본을 S.126/2로 분리한다. Ferruccio Busoni가 편집한 첫 판본은 1919년 Breitkopf & Härtel에서 출판되었으며 1849년 필사본의
음악과 직접 연결된다. 첫 판본에는 De profundis 와 더 얇은 관현악법이 남아 있지만, 최종판은 그
에피소드를 보존하지 않는다. S.525는 최종판의 피아노 독주 편곡이고 S.652는 두 대의 피아노 편곡이므로 , 두 편곡의 시간과 편성을 관현악판의 사실로 섞지 않는다.

최종 개정의 정확한 연도는 자료에 따라 1859년, 1862년경 또는 1864년으로 다르게 적힌다. Liszt Society의 작품 목록은 1853년과 1859년을 개정 연도로 제시하고, IMSLP는 두 번째 버전을 1864년으로 분류하며 Alfred의 출판 카탈로그는 최종판을 1862년경으로 표시한다. 이 차이는 하나의 완성일보다 서로 다른 목록과 출판 시점을 가리키므로 , 1865년 초연 ·초판의 관현악판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본 관계를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다.

Dies irae와 창작 맥락

Dies irae 는 서방 교회의 장례 미사에서 최후의 심판을 노래하는 라틴어 운문 선율이다. Liszt는 이 선율을 원형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리듬의 압축과 확장, 음역 이동, 피아노의 반복음과 옥타브, 관현악의 금관 음색으로 계속 변형했다. 1830년 Berlioz의 《Symphonie fantastique》 초연에서 같은 선율이 사용된 사실은 Liszt가 이 재료를 접한 음악사적 배경을 제공하지만 , 《Totentanz》의 특정 구절이 그 작품을 직접 모방했다는 뜻은 아니다.

작품 제목과 구상 배경을 설명하는 전승은 두 방향으로 나뉜다. Houston Symphony와 The Ford의 프로그램 자료는 Liszt가 Pisa의 Camposanto에서 본 죽음의 승리 프레스코와 Mozart의 《Requiem》을 떠올린
이야기를 소개한다. 반면 Kaczmarczyk의 학술 연구는 1538년 Hans Holbein the Younger의 목판화 연작 Imagines mortis와 1848–49년 편지에 나타난 언급을 작품의 제목과 변주 구상에 연결한다. 두 서술은 모두 작품의 표제와 시각적 죽음 이미지가 결합한 맥락을 설명하지만 , 어느 한 장소를 유일한 착상 계기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첫 판본에는 De profundis, 곧 시편 129/130의 재료가 Dies irae 변주와 함께 놓여 있었다. 이 재료는 Liszt 가 1835년 Abbé Félicité de Lamennais에게 보낸 기악 De profundis 구상과 인적 ·작품사적 맥락을 이루지만, 최종판에 완전한 합창 악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종판은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만으로 구성된다.

소요 시간

최종판은 연주자의 템포와 카덴차 처리, 판본에 따라 약 15–18분이 걸린다. IMSLP는 평균 시간을 약 16
분으로 제시하고, 녹음 데이터베이스에는 15분대와 17분대의 관현악판이 함께 남아 있다. Gramophone이 José Sanromá와 Arthur Fiedler의 1937년 녹음에서 제시한 구간표는 전체가 약 14분 20초이지만, 이는 특정 녹음의 시간이다. Leslie Howard와 Karl Anton Rickenbacher가 녹음한 첫 판본의 De profundis 버전은 약 18분 1초로, 판본 차이까지 포함하면 최종판의 통상적인 연주 시간과 구별된다.

편성

기준 판본인 S.126/2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독주: Piano
목관: Piccolo, Flute 1–2, Oboe 1–2, Clarinet 1–2 in A, Bassoon 1–2
금관: Horn 1–2 in D/F, Trumpet 1–2 in D/F, Trombone 1–3, Tuba
타악기: Timpani, Cymbals, Triangle, Tam-tam
현악기: Violin I–II, Viola, Cello, Double bass

첫 판본의 파트 목록에는 Flute 1–3/Piccolo와 Bass Drum/Cymbals/Triangle, Tam-tam이 보이며, 최종판은 Piccolo를 별도 파트로 두고 타악기 표기를 달리한다. Horn과 Trumpet도 첫 판본에서는 D, 최종판에서는 D/F 로 표시된다. 이 차이는 버전별 악보와 파트의 차이이며, 현대 악단의 실제 인원이나 좌석 배치를 뜻하지
않는다. 성악이나 합창 파트는 최종판에 없다.

단악장 구성

악보는 다악장 협주곡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악장이다. 처음에는 D minor의 Andante가 Allegro와 Allegro moderato로 이어지고, 피아노가 `Dies irae`의 핵심 선율을 제시한다. 그 뒤에 주제의 여러 변형과 발전이 끊김 없이 이어지며, 독주 피아노의 세 카덴차가 관현악 구간 사이에 삽입된다.

구간	악보에 표시된 명칭과 역할
도입	D minor의 Andante에서 Allegro, Allegro moderato로 이동하며 첫 카덴차를 포함한다.
주제	피아노가 `Dies irae`를 독주로 제시하고 관현악이 응답한다.
Variation I–III	주제의 초기 변주들이다. 선율의 짧은 단편과 리듬 변형이 피아노와 관현악 사이를 오간다.
Variation IV, *Canonic*	카논적 모방이 전면에 놓이는 구간이다.
Variation V, *Fugato*	푸가토와 발전부가 이어지며, B major에서 피아노가 주제를 독주하는 대목이 포함된다.
후반부	*Sempre allegro (ma non troppo)* 아래에서 여러 소변주와 두 번째 주제 재료의 처리가 계속된다.
종결	*Presto*에서 *Allegro animato*로 빨라지고, 마지막 카덴차와 피아노의 glissando 뒤에 코다가 닫힌다.

변주 번호는 분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Gramophone과 Hyperion의 해설은 앞의 다섯 큰 변주와 그 안의 소구간을 구분하고, Min Kim의 연구와 The Ford의 안내는 카논과 푸가토를 포함해 여섯 변주로 세기도 한다. Howard는 후반부를 Variation VI와 그 안의 여섯 소변주로 설명한다. 이러한 숫자 차이는 악보의 공식 악장 수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연속 구조의 작은 처리를 어디까지 독립된 변주로 셀지에 관한 분석 관습의 차이다.

초연과 초기 공연

1865년 4월 15일 헤이그 초연에서 Hans von Bülow가 피아노를 맡고 Johannes Verhulst가 지휘했다. Liszt Society의 연대기와 Gramophone의 작품 안내가 같은 날짜와 인물을 제시하며, Los Angeles Philharmonic과 BnF도 이 초연 기록을 뒷받침한다. 초연 직후의 헤이그 신문 논평과 Bülow의 리허설 지시는 충분히 전해지지 않아, 당시 관객의 반응을 특정할 수 없다.

Bülow와 Liszt의 사제 관계, 그리고 Bülow를 위한 헌정 인쇄물은 초연과 출판이 Liszt의 가까운 피아니스트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 관계만으로 Bülow의 실제 템포나 카덴차 선택을 재구성할 수는 없다. 초연 기록은 Bülow와 Verhulst의 조합으로 정리되며, Hermann Levi와 연결된 초연 기록은 제시되지 않는다.

연주 자료와 녹음

Leslie Howard는 Hyperion의 1998년 `De profundis` 버전 녹음 해설에서 첫 판본과 최종판의 차이를 연주자의 관점으로 구체화한다. 그는 첫 판본의 도입에 gong 타격이 있고 관현악법이 더 가벼우며, 최종판의

Variation IV와 세 카덴차, 후반부의 호른 주제 제시가 첫 판본과 다르게 배치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glissando 뒤에 Liszt가 피아노를 쉬게 하고 24마디의 관현악을 남긴 부분과, 자신이 trillo와 반대 방향의 반음계 옥타브 진행을 택한 이유도 함께 밝힌다. 이는 Howard의 녹음에서 취한 선택이며 모든 연주자에게 적용되는 지시가 아니다.

Jeremy Nicholas의 Gramophone 녹음 안내는 1937년 José Sanromá–Arthur Fiedler 녹음을 작품의 첫 녹음으로 소개하고, 도입부 피아노의 staccato·marcato, 세 카덴차의 빠르고 명료한 처리, 피아노와 관현악의 균형을 구체적으로 관찰한다. Edward Kilenyi의 1937년 녹음에서 Variation III 앞에 오보에 선율과 짧은 chorale을 덧붙인 사례, Arturo Benedetti Michelangeli의 유사한 삽입, Marc-André Hamelin의 2007년 실황에서 B major 주제 진술에 accelerando를 넣은 사례도 같은 글에 기록되어 있다. 출처가 확정되지 않은 삽입과 개별 연주자의 accelerando는 최종판의 필수 악보가 아니라, 카덴차와 소구간을 다루는 실제 공연
관행의 사례로 읽어야 한다.

녹음의 역사적 축은 1937년 Sanromá–Fiedler에서 시작해 1959년 Byron Janis–Fritz Reiner–Chicago Symphony Orchestra, 1972년 Georges Cziffra–György Cziffra Jr.–Orchestre de Paris, 1984년 Jorge Bolet–Iván Fischer–London Symphony Orchestra로 이어진다.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기록은 Janis–Reiner 녹음일을 1959년 2월 23일로 특정한다. 최종판과 다른 첫 판본은 Howard–Rickenbacher의 1998년 Hyperion 음반이 대표적으로 기록하며, 2009년 Eldar Nebolsin–Vasily Petrenko–Royal Liverpool Philharmonic의 Naxos 녹음은 Gramophone이 현대적 최종판 연주 사례로 다룬다. 이 목록은 연주 전통의 변화를 보여 주지만 어느 한 녹음을 작품 해석의 유일한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주요 자료

Liszt Society, Franz Liszt Works와 Chronology: 구상 ·개정 연대와 헤이그 초연 기록.

The Morgan Library & Museum, Totentanz manuscript와 Library of Congress 기록: 1849년
Conradi 필사본, Liszt의 1853년 수정, 소장 자료 정보.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Totentanz 기록 와 Los Angeles Philharmonic, Totentanz:
작품 식별자와 초연 메타데이터 .

Kaczmarczyk, “Liszt’s Totentanz” 및 DOI: Holbein, Pisa 전승과 De profundis 재료에 관한 학술적 논의.

Editio Musica Budapest, New Liszt Complete Critical Edition: Liszt 비평판 전집의 계열과 판본 원칙.

Leslie Howard, Hyperion S126i 해설: 첫 판본의 녹음, 판본 차이와 연주 선택.

Jeremy Nicholas, Gramophone 녹음 안내: 초연자, 변주 구조, 초기 ·현대 녹음과 구체적인 연주 사례.

Chicago Symphony Orchestra, Byron Janis 회고: 1959년 Janis–Reiner 녹음일과 음반 기록.

Alfred Music, S.126/2 최종판 카탈로그 및 Kalmus, 최종판 카탈로그: 최종판의 출판 ·편성 표기.